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수고 중에서 낙을 찾으라      성경: 전도서 5장 10-20절

Tag: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17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5:10-20)

전도서의 주제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의 허망한 삶에 대한 한탄’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포자기에 이르게 된다.

모든 인생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 원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고,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없는데 몸은 아프고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영생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때는 죽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삶에 대한 의미도 있으며,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몸도 건강하다면 그는 결코 죽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 내버려두고 모든 것이 없지만 오직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은 영생을 꿈 꾸다. (또는 소망이 있다면, 또는 의미가 있다면.)

그렇다면 날마다 허랑방탕할 수 있고, 날마다 산해진미를 먹을 수 있고, 날마다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고, 날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날마다 가장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사람은 그렇게 영원히 살기를 소망할까?

놀랍게도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면 쾌락이 곧 만족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쾌락은 마치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착각

을 하게 한다. 꼭 2% 부족한. 그래서 다음날 그 2%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서 쾌락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 더 많이 노력해도 여전히 2%~10%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면 쾌락은 결코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에 의미가 없는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싶지 않는 자들이 결국 가는 곳이 쾌락이라는 무덤이다. 잠언에서는 그것을 마치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만족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만족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 사실 그것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가 있으며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표현은 그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은 사실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명이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연구한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가 밝혀낸 만족의 법칙은 이렇다.

어차피 영생은 없으니 이 세상 살아가는 몇십년 동안 만이라도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가장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면?

그것은 수고 중에서 낙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만족의 법칙이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맛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가, 그것을 배부르게 먹어서 행복한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먹어서 행복한가?

그런데 사랑이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도 없고, 배고픔이 없이는 음식이 맛이 없다.

수고함 없이는 배가 고프지 않는다.

결국 희생함으로 사랑을 지키고, 수고함으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사랑하

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는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셨다. 그분은 가장 만족스러운 일을 하셨고, 당당하게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